

유통 향신식물 및 천연향신료의 잔류농약 실태조사

I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음식 문화의 세계화 및 해외 전문음식점의 국내 증가 등으로 인해 향신식물과 향신료의 유통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
- 그러나 향신식물 및 향신료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수가 적어 PLS 기준(0.01 mg/kg) 적용하는 농약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
-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및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향신식물 및 천연향신료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하여 안전성 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
II 연구개요

- 기 간 : 2022. 1. ~ 2022. 12. (1년간)
- 대 상 : 유통 중인 향신식물 및 천연향신료
- 향 목 : 잔류농약 478종

III 연구결과

- 향신식물 및 향신료 총 84건(14품목)에서 27건(32.1%, 11품목)이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12건(14.3%, 7품목)이었음
- 향신식물의 잔류농약 검출현황은 향신열매 8건 중 4건으로 50.0%, 향신씨 4건 중 2건으로 50.0%, 허브류 72건 중 21건으로 29.2% 검출되었으며 총 31종의 농약이 57회 검출됨
- 부적합 현황으로는 허브류 중 방아 4건, 민트 3건, 딜 1건, 바질 1건, 타임 1건, 월계수잎 1건으로 총 11건에서 기준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, 향신열매에서는 산초 1건으로 총 12건이 기준초과하였음
-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된 농산물로는 허브류 중 방아 4건, 민트 3건, 딜 1건, 바질 1건, 타임 1건, 월계수잎 1건으로 총 11건에서 기준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, 향신열매에서는 산초 1건으로 총 12건이 기준초과하였다. 기준초과한 농산물에서 총 19종의 농약이 25회 검출되었으며 그 중 17종이 향신식물 및 허브류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으로 PLS 기준이 적용됨
- 기준초과한 19종의 농약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%ADI로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0.0000 ~ 0.1089%(%ADI)로 안전한걸로 판단됨
- 향신식물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재배농가들이 농약사용지침을 준수하도록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향신식물에 대한 농약의 약효 성분 시험, 작물 잔류성 시험 등을 통해 농약등록 확대 및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

IV 정책연계방안

- 식품안전관리지침 및 안전한 농산물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

V 활용계획

- 안전한 먹거리 이용 정보 제공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